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



▶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고, 상명여대부속여고 국어교사를 거쳐 샘터사 편집자로 일했다.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암자로 가는 길〉(전 3권) 등 수십 권의 저서를 펴냈다.

다르마를 위한 초대

벵골만 쪽에서 아침 해가 떴다. 안개를 뚫고 솟아올라온 핏덩어리처럼 붉은 해였다. 비로소 짙은 안개에 짓눌려 있던 강가강이 염염하게 드러났다. 드러누운 강은 도도하고도 풍만했다. 짬빠성을 휘돌아 흐르는 강가강은 시바신의 허리처럼 세 번을 꺾으면서 흘렀다. 짬빠성은 앙가국의 수도였다. 강가강 가트로 나와 강물에 몸을 적시는 사람들은 짬빠성에 사는 브라흐민들이었다. 가트는 반반한 화강암으로 조성한 계단이었다. 천민 수드라들은 시신을 태우고 있는 화장터 옆의 강변에서 기도를 했다. 아침 해를 보고 기도하는 브라흐민들 중에는 다르마 처녀의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브라흐민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브라흐민 청년들은 다르마를 만나려고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훤한 이마와 커다란 눈, 오뚝한 코와 도톰한 입술을 지닌 다르마는 짬빠성 브라흐민 청년들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다르마는 아버지처럼 키가 크고 위엄이 있는 청년을 원했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아직 남자를 몰랐다. 다르마는 새장 속에서 갇혀 사는 새나 다름없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옷을 벗지 않고 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엉덩이까지 내려온 흰 도티는 아침마다 흠뻑 젖어 있었다. 기도하는 가트의 자리까지 강물에 젖어서 축축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하늘과 땅, 불과 물의 신을 찬미하는 리그베다를 큰 소리로 외었다. 브라흐민들이 외는 기도는 모두 달랐다. 대부분의 브라흐민들은 아타르바베다를 중얼거렸다. 아타르바베다는 재앙을 물리치고 복 받기를 비는 주문이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아침 햇살은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에 떨어져 난반사했다. 강바람은 아침 해의 손길 못지않게 브라흐민들의 옷과 머리카락을 말려주었다. 다르마의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리그베다 기도를 끝냈다. 리그베다를 다 암송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더 없이 충만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아지비카교 수행자 빵갈라바뜨사가 다가왔다. 그와는 거의 매일 마주쳐 왔으므로 경계할 일은 없었다. 빵가라바뜨사가 인사를 건넸다.

"브라흐민이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오."

"아침마다 강가로 나와 기도하니 하늘의 인드라 신께서 복을 주시고 있소."

브라흐민이 합장을 하며 대답했다.

"나는 그대의 운명을 알고 있다오."

"또 그 말씀인가요?"

브라흐민은 빵갈라바뜨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인사를 건넨 뒤 앵무새처럼 크게 말했던 것이다.

"맞아요! 나는 또 우리의 교주이신 막깔리 고살라의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다오."

"구루시여.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수십 번 들은 것 같소. 이제는 다 외울 지경이요. 하하."

브라흐민이 웃음을 터뜨리자 빵갈라바뜨사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말했다.

"강가를 보시오. 저 해를 보시오. 저 망고나무숲을 보시오. 강은 강일 뿐이고, 해는 해일 뿐이고, 망고나무숲은 망고나무숲일 뿐이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오. 그대도 사람으로 태어날 운명이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일 뿐이오. 죽으면 또다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날 것이오. 그러니 그대의 의지로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오. 그대는 운명대로 살아갈 뿐이오."

"우리 브라흐민들 기도가 헛수고란 말이군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베다가 틀렸단 말이오?"

"물론 그건 아니오. 다만 신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말이오. 8백 40만 겁이 지나는 동안 저절로 그대의 고통이 씻어질 텐데 무엇 때문에 아침마다 강물에 들어가 기도하느냔 말이오."

빵갈라바뜨사의 말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에는 더 행복할 텐데 무엇 때문에 베다를 중얼거리면서 신에게 비느냐는 것이었다. 브라흐민은 빵갈라바뜨사가 또 다시 진지해진 것을 보고는 은근히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었다.

"구루시여. 나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소. 오늘도 아무 탈 없이 맞이한 아침을 망치고 싶지 않다오."

그래도 빵갈라바뜨사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얼마 전에 대왕께서 나를 왕궁으로 초대했소. 이제 일부 대신들까지 베다를 멀리하고 있소. 부귀공명을 누리는 운명으로 타고 났으니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오."

"정말이오?"

"단순하게 초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왕자들을 교육할 것이오. 영명하신 대왕께서 브라흐민뿐만 아니라 우리 아지비카 수행자들에게도 공양을 하겠다고 선언했소."

대왕이란 빈두사라를 말했다. 빈두사라는 마우리아국 수도인 빠딸리뿌뜨라 궁궐로 수행자들을 매일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는데 모두 6만여 명이나 되었다. 6만여 명 중에는 브라흐민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교와 자이나교, 이제는 아지바카교 수행자들까지 모여 들기 시작했다.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모여든 까닭은 빈두사라의 아버지 짠드라굽따 대왕이 말년에 자이나교로 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베다를 믿는 브라흐민들의 위세는 대단했다.

브라흐민 청년들은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면 어김없이 강가강 가트로 나가 양을 잡아 제물로 올려놓고 예배의식인 아르띠 뿌자를 치렀다. 강가강 가트는 타오르는 기름불로 휘황찬란했고 푸르스름한 향불 연기는 여신도들의 옷자락처럼 하늘거리다가 강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사라졌다. 북소리가 둥둥둥 고조하면 빠딸리뿌뜨라 성민들도 미친 듯 기도하며 베다를 중얼거렸다. 마우리아국을 건국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수십 년의 전통이었다. 지금도 아르띠 뿌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빈두사라 대왕이 후원했다.

이에 비해 불교나 자이나교,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은 브라흐민교도들의 의식을 비웃었다. 살생을 금한 불교나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브라흐민교와 달리 브라흐민,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 신분규정을 부정했고, 아지비카 수행자들은 까르마(업)에 의한 윤회를 부정했다. 아지비카 수행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은 까르마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장대한 법칙에 의해 숙명적으로 정해진 운명에 따라 윤회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은 아무 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숙명론자인 아지비카 수행자들이 염세주의자이거나 비관론자들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되 경건하고 긍정적으로 즐기자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다만, 고행을 통해서 수행자와 신도들의 정신을 맑게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은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았다.



아침 햇살이 금세 따가워졌다. 강바람이 브라흐민의 목덜미를 간지럽게 했다. 햇살이 떨어지고 있는 강물은 눈부실 만큼 반짝거렸다. 다르마의 아버지인 브라흐민은 고슬고슬 마른 머리카락을 말아서 정수리 쪽으로 틀어 올렸다. 그제야 빵갈라바뜨사가 자리를 뜨려고 했다. 브라흐민이 말했다.

"구루시여. 오늘저녁 나의 집에서 공양을 올리고 싶소." "지난번에도 초대해 공양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오." "어째서 그러하지요?" "나는 내일 새벽에 빠딸리뿌뜨라로 떠난다오. 그러니 저녁공양을 거절하는 것이오." "다른 구루라도 보내주시지요." "무슨 일이 있소?" "나의 딸 다르마의 운명을 점쳐보고 싶어서 그러하오."

빵갈라바뜨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그 일이라면 걱정 마시오. 나의 친구 자나사나를 보내겠소. 자나사나는 나보다 관상을 더 잘 본다오. 그대의 딸을 보자마자 바로 운명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오."

"나는 조금 전에 인드라 신께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수행자에게 저녁공양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쉽소."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나려면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오. 그러나 나의 친구 자나사나가 있으니 더 잘된 일이오. 자나사나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반드시 만족할 것이오."

갈매기 한 마리가 빵갈라바뜨사의 얼굴을 할퀼 듯 가까이 날아왔다가 너울너울 되돌아갔다. 부리와 눈매가 빵가라바뜨사처럼 날카로웠다. 빵갈라바뜨사가 놀란 채 흠칫 고개를 젖히면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브라흐민은 내일 아침부터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섭섭하기도 했다. 빵갈라바뜨사가 아지비카교로 개종할 것을 은근히 강요했지만 끝내 응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들었던 것이다.

아지비카교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는 동굴은 가트에서 십여 리 떨어진 절벽에 있었다. 절벽 바로 밑은 강가강 강물이 넘실거렸다. 그들은 짬빠성 안에 사원을 짓지 않고 동굴에서만 살았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환했다. 강가강에 떨어지는 햇살이 빛기둥처럼 동굴 안으로 들어오곤 했다. 동굴 벽에는 아지바카교 교주 막깔리 고살라의 좌상이 음각되어 있었다. 수행자들은 수시로 막깔리 고살라 좌상을 향해 엎드려 기도했다.

그날 오후. 강가강 언덕에 있는 사원을 들렀다가 짬빠성으로 돌아온 브라흐민은 아내와 외동딸 다르마를 불러놓고 말했다.

"여보, 구루에게 저녁공양을 올리기로 했으니 준비하시오."

외동딸 다르마가 물었다.

"아버지, 어떤 분이 오세요? 우리 집에 여러 번 오신 빵갈라바뜨사 구루세요?" "원래는 그분을 초대했으나 대신해서 자나사나 구루를 보낸다고 하는구나." 빵갈라바뜨사에게 공양하기를 좋아했던 부인도 물었다. "무슨 일이래요?"

브라흐민이 부인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다르마의 결혼 운세를 알아보려고." 부인은 브라흐민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다르마에게 말했다. "다르마야, 나는 음식 준비를 할 테니 너는 집안을 청소하고 마당을 좀 쓸어라." "네, 어머니."

브라흐민 가족은 흙벽돌로 만든 단층집에서 살았다. 정원이 넓어 손님들은 집을 찾아오는데 잠시 헤매기도 했다. 정원에는 부겐빌리아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부겐빌리아 꽃은 향기는 없지만 화려했다. 공작의 깃털처럼 보라색, 주홍색, 흰색, 분홍색, 노란색 등 일곱 가지 색의 부겐빌리아 꽃이 피고 졌다. 사원에서 흔히 본 상록수 플루메리아의 꽃도 하얀 치아처럼 깨끗하고 우아하게 피어 있었다.

대문 앞에는 참나무 일종인 큐이스큐알리스 꽃이 땅바닥에 떨어져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놓은 듯했다.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질 때면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다르마는 큐이스큐알리스 꽃들을 보면서 수백, 수천의 정령들이 붉은 옷을 입고 반딧불이처럼 날아다니며 춤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구루께서 보시면 무척 기뻐하실거야.'

다르마를 아쉽게 한 꽃이 있다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귀나무 붉은 꽃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었다.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양쪽의 이파리가 서로 껴안듯 오므라들었다. 마치 금슬 좋은 부부 같은 나무가 자귀나무였다. 다르마는 작은 꽃들을 따서 꽃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녁에 방문하는 수행자 목에 걸어줄 꽃목걸이였다. 다르마 자신은 플루메리아 흰 꽃을 하나 따서 머리에 꽂았다.

브라흐민은 베란다 쪽으로 식탁과 대나무의자를 옮겼다. 베란다에서는 삼면이 트여 정원의 꽃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다르마야, 화병에 꽃을 꽂으렴."

"예, 아버지. 파파벨라 꽃이 좋겠어요."

다르마는 화병에 파파벨라 꽃을 한가득 꽂았다.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고 있던 브라흐민은 흐뭇했다. 딸이 여러 꽃 중에서 파파벨라 꽃을 꽂은 것도 빵갈로바뜨사의 말처럼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다르마 가족은 자나사나 수행자를 맞이할 준비를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했다. 정성을 다해 짜빠티를 굽고, 집안의 해묵은 먼지를 털고, 정원의 오솔길을 쓸었다.

이윽고 망고처럼 붉은 석양이 거풋거리는 대숲 저편으로 지고 있었다. 석양빛이 마지막으로 다르마의 정원과 집을 어루만졌다. 다르마 어머니는 강가강 강물이 담긴 항아리를 베란다 앞에 갖다놓았다. 자나사나 수행자가 손과 발을 씻을 강물이었다. 〈계속〉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자기 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대한불교 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